



2020년 2월 16일(제969호) 연중 제6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내 마음속의 포장지”

저는 마트에 가서 직접 물건을 고르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와는 다르게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도 있고 쇼핑카드를 끄는 것도 무언가를 조종하는 느낌이 나서 은근히 재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식코너를 통해 사고자 하는 물건을 직접 맛볼 수 있다던가, 온라인으로 알 수 없는 신상품이나 떨이 상품 등, 예상치 못한 행운들은 마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건을 사고 나면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입니다. 별로 많이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박스며 플라스틱이며 비닐이며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사 온 제품보다도 쓰레기의 부피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절로 한숨이 폭 나옵니다. 아무리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이젠 너무나한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자주 듭니다.

오늘의 복음을 보며 저는 이 포장에 대한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명을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시작 말씀은 마지막에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마태오 5장 3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떳떳하지 못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이들은 단순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말을 포장하고 논점을 흐리게 합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만 하더라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어디 있는지를 찾는 하느님의 물음에 ‘저희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한 채 변명을 하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성경 속 아담과 하와처럼 어린 시절 단순히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었던 질문들을, 어른이 되고 나

서는 수많은 미사여구로 진실을 감싸서 ‘예인 듯한 아니오’, 혹은 ‘아니오 같은 예’로 말하게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손해 보거나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혹은 얽잡아 보인다거나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 수많은 이유로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말의 기술로 소개될 때는 참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기를 진정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들은 분명 사랑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지만, 그 안에 규칙의 군더더기를 붙여 법을 사람 위에 놓고 양심과 사랑의 심판보다는 문자의 심판을 더욱더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했던 진리는 체계화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복잡함을 띄고 이를 권력으로 삼은 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지혜로 포장하여 동포를 노예로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기까지 하니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서의 폐지를 언급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앞에서 고백할 때만큼은 거래와 협상을 해선 안 될 말입니다. 단지 어린아이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해 ‘예’나 ‘아니오’로만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지혜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작은 아이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최재관(임브로시오) 신부
진진(1사단)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집회 15,15-20
- 회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제 2 특 시** 1코린 2,6-10
- 특음 권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특 음** 마태 5,17-37
- 영 성 제 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인인민 마르티노



성인명: 인인민 마르티노 (印彦敏 Martin)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37-1800년

1737년 충청도 덕산 주래(현,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인인민(印彦敏) 마르티노(Martin)는 온순하면서도 깨끗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상당한 학식도 쌓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에 알고 지내던 황사영 알렉시오를 만나면서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이내 그에게서 교리를 배운 뒤, 한양으로 올라가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때 인 마르티노는 장남 요셉을 주 신부 곁에 남겨 두었으며, 얼마 뒤에는 차남을 유명한 교우의 딸과 혼인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집과 재산을 버리고 공주로 이주하였다. 이때 친척들이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자, 그는 이주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친척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797년에 시작된 정사박해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인 마르티노는 공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밝히고, 천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뒤 옥으로 끌려갔다. 그런 다음 청주로 이송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감사의 명에 따라 다시 그의 고향을 관할하던 해미 관장 앞으로 이송되었다. 인 마르티노는 청주에서 받은 형벌 때문에 걸을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청주에서 해미까지 가는 동안, 조정 관리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말을 타고 가야만 하였다.

해미에 있는 감옥에서 인 마르티노는 젊은 이보현 프란치스코를 동료로 만나게 되었다. 이후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권면하면서, 갖은 형벌과 문초와 유혹 아래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인민도 이보현과 같이 때려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형리들은 관례에 따라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음식을 인 마르티노에게 가져다준 뒤, 그를 옥에서 끌어내 매질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엄청나게 큰 돌을 들어 그의 가슴을 여러 번 내리쳤다. 이내 그의 턱이 떨어져 나가고 가슴뼈는 부서지고 말았다.

결국 인인민 마르티노는 이러한 형벌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때가 1800년 1월 9일(음력 1799년 12월 15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3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고사목을 보며



오랜 시간	내 삶도
한 자리에서 뿌리를	그렇게
박고 살다	한 자리를
이제는 삶을	오래 지키다
마무리하는	갈 수 있길
고목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상화이야기

싱클롬비 재단화



오른쪽 패널



세부도

오른쪽 그림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마주친 시메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가올 수난을 예언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도 아기 예수님은 수난을 상징하는 흰 천에 싸여계신다.

아기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받치고 있는 시메온의 손과, 이를 바라보고 있는 안나, 그리고 성모님의 표정이 모두 의미심장하게 그려져 있다. 이 장면이 행해지는 곳은 중세시대에 세례가 행해지던 세례당이지만 왼쪽은 성당 내부인 반면, 오른쪽 뒤로 보면 외부에 열려있는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6주일: 태평 박우상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 때: 2월 16일(주일) 11:00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 군중교구 지운대 성당 시무장 모집

- 자격 : 컴퓨터 사용 가능자, 운전면허 1종 보통 보유자
- 인원 : 1명
- 접수 : 2월 28일(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군중교구 홈페이지 (gunjong.or.kr) 참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지후를 따라” -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